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2015. 10. 19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 과장 윤종수 / 사무관 이창현 (Tel. 044-200-2237)
10.19(월) 14시 30분(행사 직후) 사용			

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찾은 총리, “안전수칙 준수” 강조

-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시
 - 가설구조물 및 타워크레인 등 안전취약 분야 집중관리방안 주문
 - “안전은 기본적인 현장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” 강조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0.19(월) 세종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안전 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.
 - 이날 황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현장 재해율이 0.73%로 전체 산업 재해율(0.53%)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,
 - 특히, 재해 발생원인이 안전수칙 미준수(55%), 안전설비 결함(21%) 등 원시적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
 - “건설현장 안전은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”하다고 강조하였다.
 - 이날 현장에서 황총리는 타워크레인, 작업용 가설 승강기 등 건설현장내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고, 시설들이 절차에 맞게 설치되고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.
 - 점검과정에서 황총리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,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, 안전취약 분야(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, 소규모 공사장, 건설자재품질 등) 집중관리방안 등을 주문하였다.

- 특히, 최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(부평역, 9.16, 2명 부상) 등 가설 구조물과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
 - 가설구조물도 본 구조물 수준의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것을 지시하였다.

- 오늘 언급된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10.21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.